하나 된 和音이 밝힌 봉축등

부산 영도구불교연합 부처님오신날 합창제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마음愛 자비를! 세상愛 평화를!"

무대에 오른 합창단과 청중이 함께 목소리를 높여 부처님오신날 봉축표어를 외쳤다. 세상에 평화와 자비를 밝히는 마음으로 합창단은 등을 밝혔다. 부처님의 탄생을 찬탄하는 무대가 펼쳐졌다. 부처님이 이 땅에서 전한 진리를 기쁨으로 노래하고 춤을 추며 하나 되는 잔치가 열렸다.

부산 영도구불교연합회(회장 호법)는 4월 13일 '불기2563 부처님오신날 영도구불교합창제'를 영도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개최했다. 영도구불교연합회는 부산 16개 구·군 가운데 처음으로 봉축을 합창으로 축하하고 알린 곳으로, 무엇보다 수준 높은 곡과 연주 실력을 보여 이목을 끌었다.

합창제 막이 오르자 해금이 연주됐고 소년이 치는 목탁 소리에 맞춰 3명의 어린이들이 맑은 목소리로 삼귀의를 노래했다. 합창제에 어울리는 오프닝 무대로 신선함을 선물하며 시작한 합창제는 곧이어 연등을 든 미룡사 바라밀합창단이 무대에 등장해 '얼음위에 반가사유'와 '묘법연화경'을 차례로 부르며 청중을 아름다운 찬불가의 세계로 초대했다. 대원사 대원선재합창단과 대원해련합창단은 '만 생령을 위해 오심'이란 곡으로 부처님 오심을 축하했고 '지혜와 자비로 부처님 같이', '목탁새'를 불러 박수를 받았다. 특히 목탁새는 풍경과 목탁 소리를 활용해 곡을 꾸며 불교문화의 절묘한 어울림을 화음으로 보여줘 새로운 찬불가 세계를 선사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한마음선원 부산선법합창단은 '마음이 항상 봄이라야'와 '모난 것을 둥글게 쓸 줄 알아야 자유인이 된다'라는 곡을 선보였다. 한마음선원 부산선법합창단은 대행선사의 가르침을 선법가에 담아 한마음의 도리를 널리 알리고 있다.

부산 16개 구·군 중 최초
수준 높은 찬불가에 호평
특색 있는 무대 연출 이목
"진리의 노래 끊이지 않길"

이번 합창제는 자칫 딱딱할 수 있는 인사말 및 축사 순서를 축소하고 음악에 집중할 수 있는 연출로 집중도를 높였으며, 2부에서는 미룡사 바라밀합창단이 댄스와 랩을 접목해 파격적인 무대로 눈길을 끌었다. 한마음선원 부산선법합창단 소속 거사합창단은 '마징가 Z'를 웅장하면서도 재치 있게 불러 박수를 받았으며, 어머니 합창단은 '무지개 저 너머로'와 '오즈의 마법사'를 감미로운 목소리로 담아 선사했다.


영도구불교연합회는 4월 13일 '불기2563 부처님오신날 영도구불교합창제'를 영도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개최했다.

게스트 보체(VOCE)의 격조 높은 남성앙상블 공연에 이어 회향의 무대에서는 출연자 모두가 나와 곡 '부처님오신날'을 부르며 마무리했다.

합창제는 한마음선원 부산선법합창단, 대원사 대원선재합창단, 미룡사 바라밀합창단 등 3팀이 참여했으나, 부처님오신날을 축하하는 무대를 위해 영도에 있는 사찰과 불자들이 모두 함께 관심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여 뜻 깊은 무대로 장식됐다. 합창제에는 영도구불교연합회 법주인 태종사 회주 도성 스님, 미룡사 회주 정각 스님, 회장 호법 스님, 부회장 혜도 스님, 담화림 스님, 원영정사를 비롯해 부산 각 지역에서 찾아온 스님들과 대중이 객석을 가득 채웠다.

회장 호법 스님은 "오늘 이 자리에 울려 퍼지는 세 합창단의 화음을 통해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전해준 진리를 다시 한 번 되새기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차경 영도구불교합창단장은 "부처님오신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며 "오늘 무대로 많은 불자님들에게 희망과 설렘을 안겨드리고 모두가 부처님의 제자로 다시 삶을 돌아보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회향사에서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장 혜도 스님은 "합창제 막은 내리더라도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의 마음 안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은 진리의 노래가 끊이지 않고 내내 울려 퍼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영도구불교합창단은 합창제에서 영도구청에 자비나눔 기금 200만원 및 영도구불교연합회에 발전기금 200만원을 전달했다.

나라 번영과 국민 행복 위한 삼보일배

부산불교교육대 300여 명 광복로서 '경제살리기 발원'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호국불교 정신을 계승하며 '부산경제 살리기'를 위한 삼보일배가 진행됐다.

부산불교교육대학(학장 범혜)은 4월 13일 부산 중구 광복로 일대에서 '경제살리기 구국삼보일배 법회'를 봉행했다.

삼보일배는 학장 범혜 스님과 권혁란 총동창회장이 선두에서 석가모니불을 염송하며 세 걸음 나아간 후 몸을 숙여 절을 했고, 부산불교교육대학 재학생 및 시민 300여 명도 뒤를 따르며 함께 기도하고 절을 올렸다. 오직 나라의 번영과 경제 발전을 통해 시민들이 행복하길 기원하는 행사였다.



부산불교교육대학은 4월 13일 부산 중구 광복로 일대에서 '경제살리기 구국삼보일배 법회'를 봉행했다.

학장 범혜 스님은 "호국을 위한 불교의 역할은 역사 속에서 확인된다"며 "오직 중생의 행복을 생각하는 보살도가 호국의 기본정신이 되어 오늘 이 자리에 서있게 만들었다. 침체된 경제 속에 괴로워하는 사람이 없도록 모두 다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자"고 당부했다.

권혁란 총동창회장은 "호국불교 정신을 마음에 담고 침체된 나라의 경제 발전을 위해 모인 여러분이 자랑스럽다"며 "오늘 간절히 기도하는 염원이 모두의 행복으로 돌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제살리기 구국 삼보일배'는 개회법요식에 이어 삼보일배 거리행진, 예술문화행사 등으로 마무리됐다.

부산불교교육대학은 1982년 개교해 38년 동안 1만 6000여명이 졸업, 1200여명의 포교사와 100여명의 스님을 배출했다. 부산불교교육대학은 살기좋은 부산 만들기 캠페인 일환으로 경제살기기 구국 삼보일배를 개최했으며 매년 자살과 교통사고 예방거리 캠페인, 자비연탄나눔 등 도 진행하고 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전주불교 "전주 특례시 지정 기원"

전주불교연합회, 4월 29일 기원법회 · 사찰음식 만찬

전주불교연합회(공동대표 덕산, 금선암 주지)가 전주지역의 최대 현안인 전주특례시 지정을 위해 오는 4월 29일 전주 웨딩팰리스에서 '전주특례시 지정 기원 및 사찰음식 만찬' 법회를 개최한다.

특히 이번 법회에는 지역사회 발전 공로자들을 초청해 사찰음식 만찬을 제공하면서 사찰음식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감사의 마음도 전하기로 했다. 또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전주시의 대표 아동정책인 '밥 굶는 아이 없는 엄마의 밥상' 사업에 성금을 전달, 부처님오신날 표어인 '마음愛 자비를! 세상愛 평화를!'을 실천할 계획이다.

현재 전주시를 특례시에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지역사회에서는 개정안이 국회 심의를 통과해 전주시가 지역발전을 이끌어 낙후된 전북을 발전시키고, 국가균형발전에도 이바지하길 기대하고 있다.

전주불교연합회 공동대표 덕산 스님은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지역사회 현안인 전주 특례시 지정을 기원한다. 지역사회에서 애쓰는 분들에게 사찰음식 만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려고 준비했다"면서 "전주불교연합회는 나눔과 소통으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자비를 실천해 부처님오신날의 의미를 널리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불교연합회는 종단, 계파, 승속을 초월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이라는 슬로건으로 지역불교 중흥과 사회적 역할을 위해 2017년 4월 창립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열린불교아카데미, 새 도량 문 열어

4월 14일 부산 서면에 가야법보선원 개원

불교경전 전문 강설 열린불교아카데미가 새로운 법의 도량을 열었다.

열린불교아카데미(대표 김윤희)는 4월 14일 '가야법보선원 점안 및 개원법회'를 봉행했다.<사진> 가야법보선원은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부다가야의 '가야'와 보배인 '불법'을 상징한다. 3년 전 지도법사인 원순 스님과의 인연으로 매주 강설법회를 이어오다 부산 중심가인 서면에 새롭게 법당을 조성, 법 도량으로 새로운 도약을 맞았다.



개원법회에서 원순 스님은 "늘 정진하고 수행하는 공간으로 회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도법사 원순 스님은 해인사 백련암에서 성철 스님을 은사로 출가, 현재 송광사 인월암에 주석하고 있다. 조계종 교재편찬위원을 역임했으며 현재 조계종 기본선원 교선사(敎禪師)로서 어록을 강의하고 있다.

열린불교아카데미는 경전과 어록을 공부하는 모임으로 2015년 4월, 원순 스님의 〈원각경〉 강의를 시작으로 출발했다. 이후 〈대승기신론〉〈선요〉〈신심명〉〈증도가〉 등 강의 법석이 이어지고 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어르신 쾌유발원 음악회 열려

사하구불교聯, 한우리요양병원 방문해 10일 개최

사하구불교연합회(회장 법인)는 4월 10일 부산 사하구 한우리요양병원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음악회를 개최했다. 사하구불교연합회 회원 스님들은 간식 300인분을 마련해 병원 환자 및 가족들에게 선물하고 쾌유를 기원했다. 아울러 흥겨운 음악회를 선물하며 즐거운 잔치 한마당을 열었다. 음악회에는 사하구불교연합회장 법인 스님, 총무 송우 스님 등 연합회 소속 스님과 어르신 100여 명이 동참했다.

회장 법인 스님은 "오늘 어르신들이 이 자리에 많지 않다"며 "그건 많은 분들이 쾌차해 퇴원 하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한편으로 정말 기쁘며 지금 계신 어르신들도 모두 쾌유하시길 바란다"고 기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우주의 신비가 호흡에 있다 - 호흡의 비밀을 풀다

만트라 염불禪치료 명상 센타

기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낮 12시 30분

4차 산업혁명과 AI 인공지능 시대에 미래의 대체의학인 기공(밀교의 의성신·금강신)을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입 문 : 고타마 싯다르타(석가모니)부처님의 호흡법을 발견 · 전수함.
■ 고 급 : 개인의 기공능력을 아무 부작용 없이(주화 입마, 상기병 등등) 키워나가면서 단기간에 최고의 경지에 이르고자 하는 분. (비법 전수)
■ 특 징 : 제 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피부호흡)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 (기에너지체) 고요 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호흡 선정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 (면접 상담 후 결정) ■ 등록번호 : 138-50-00260
■ 문 의 : ☎ 02-393-8027 (기공치료 예약 접수)

기공치료 명상가 처명(선광)스님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과정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전)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제6차크라열리기 전·후 비교사진


2015년 8월 4일


2017년 1월 9일

*후원계좌 : 국민은행 (371101-04-120586 박성호)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처명선광) 검색

만트라 염불禪치료 명상과학연구소(소장:처명)

한국불교사를 중심으로 한 불교의 역사

우리나라 불교는 통일신라 때에 동아시아 정상에 버금가는 수준에 도달한 이래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 특히 조선시대 억불정책과 일제 강점기의 사찰령, 해방 이후의 정치적 격변 등은 한국불교의 현재를 규정짓는 중대한 계기로 작용하였다.

많은 불자들이 한국불교의 역사적 과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한편에서는 종단이나 불교단체를 향해서 무분별하고 극단적인 비난을 서슴지 않으며, 또 한편에서는 아예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 결과 스님들 사이에서는 물론이요 신도들 간에도 불신이 확산되면서, 불자들 간의 화합은 물론, 신행의 동력조차 상실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강의에서는 인도불교사와 중국불교사를 포함해서, 삼국시대부터 근현대까지 한국불교의 역사적 배경을 개략적으로나마 이해하여 향후 불자들의 신행방향을 정립하는 데 도움이 되게 하고자 한다.

강의소개

일 시 2019년 5월 1일부터 매주 수요일
저녁 7:30 ~ 9:30 (약 120분)
기 간 3개월 수강료 18만원
교 재 불교사의 이해 (조계종출판사 / 9,000원)
[교재는 별도 구매입니다.]
장 소 센텀 일심사
부산 해운대구 재송1로 35 창광빌딩 3층
교 통 지하철 : 동해선 재송역 앞
버스 : 재송역 혹은 해운대경찰서 하차

문의전화 | 051-781-0543



혜룡스님
센텀 일심사 | 주지

동국대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석박사 과정에서 다년간 종교학과 한국근대불교를 연구한 경력으로, 수강생들에게 보다 차원 높은 한국불교사 관련 지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